

6월 싱가포르 표고버섯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임산물 수입동향

- '14년 싱가포르 임산물 총 수입은 US\$437,330천불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금액 0.28% 증가함.
- '14년 기준 싱가포르 임산물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이며, 총 물량은 16,469톤, 금액은 US\$202,253천불임. 2위 수입국인 중국은 '12년 이후 수입 물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싱가포르 임산물 수입 통계>

(단위 : 톤, 천불)

순위	국 가	2012 년		2013 년		2014 년		증감률(%)		단가 (USD)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총수입량	-	449,150	-	436,095	-	437,330	-	0.28	-
1	말레이시아	18,492	216,505	20,530	216,220	16,469	202,253	-19.78	-6.46	8.24
2	중국	1,398	66,386	1,450	75,007	1,515	91,047	4.52	21.38	34.72
3	인도네시아	21,395	63,674	4,031	52,103	3,111	44,877	-22.83	-13.87	5.52
4	미국	264	9,415	510	8,741	2,251	13,345	341.12	52.67	5.46
5	마다가스카르	-	526	-	0	3	11,804	-	-	-
11	한국	2,070	7,935	9	3,157	19	4,209	94.25	33.32	211.97

출처 : Global Trade Atlas

- '15년 싱가포르 버섯류 총 수입액은 SGD\$16,162천불로, 전년 동기 수입 총 수입액인 SGD\$15,924천불에 비해 1.49% 소폭 증가함.
- '15년 기준 싱가포르 최대 버섯류 수입국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총 SGD\$6,428천불 규모를 수입함. 2위는 중국으로 총 SGD\$5,034천불 수입하였으며, 수입액 면에서 1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한국 산은 총 SGD\$426천불로 상위 수입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단위: SGD천불)

구 분	'14.1~4	'15.1~4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버섯류	15,924	16,162	1.49%	말레이시아	6,428	중국	5,034	태국	1,380	426

자료 : IE SINGAPORE

□ 표고버섯 수입동향

- 생표고는 분류상 기타버섯류(HS코드 070959)에 포함되어 있어 기타 버섯류 수입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15년 기준 싱가포르 생표고 총 수입액은 SGD\$10,339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하였음. 생표고 수입국 1위는 중국이며, 총 수입액은 SGD\$4,966천불임. 이는 2위 국가인 말레이시아 수입액 SGD\$2,160천불의 2배에 달함.
- '15년 기준 건표고 총 수입액은 SGD\$4,147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상승하였음. 건표고 수입국 1위는 생표고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차지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SGD\$3,975천불임. 2위와 3위는 각각 홍콩과 일본임.

(단위:SGD천불)

품목	'14.1~4	'15.1~4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HS코드 *상위가능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표고버섯 (생표고) 070959	14,485	10,339	-28.6%	중국	4,966	말레이 시아	2,160	태국	1,312	-
표고버섯 (건표고) 07123920	3,173	4,147	30.6%	중국	3,975	홍콩	98	일본	60	-

자료 : IE SINGAPORE

□ 표고버섯 생산 및 가격 동향

1. 표고버섯 생산동향

- 싱가포르는 국토의 1%만이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비농업국가임
- 싱가포르에는 버섯을 전문으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유일한 농장인 Mycofarm이 있으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버섯의 종류는 표고버섯인 Shiitake와 King Oyster가 있음. 한 때 규모 9.8헥타르에 약 20톤/월의 버섯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생산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
- 그 밖의 버섯 재배시설로는 Kin Yan Agrotec.이 있으며, 버섯종류는 다양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채소를 재배하며 제품 판매 및 견학 등 교육농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싱가포르 내 생산이 있지만 생산 규모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여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버섯류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표고버섯 소매가격 동향

가. 건표고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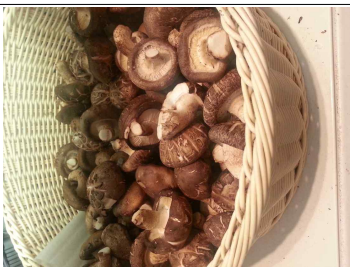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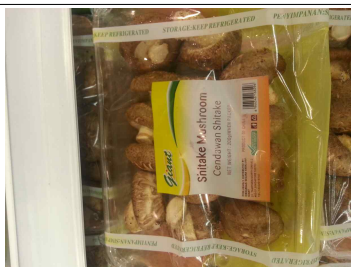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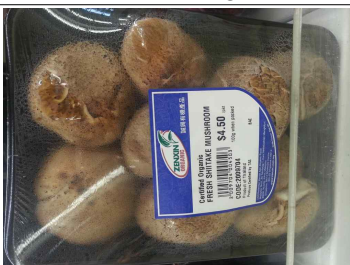
		
중국산 (Sun Kee) S\$16.95/350g Fair Price	중국산 (Sun Kee) S\$13.95/350g Fair Price	중국산 (Chwee Song) S\$5.40/200g Fair Price
		
일본산 (Pasar) S\$4.75/50g 중국산 (Pasar) S\$2.20/50g Fair Price	일본산 (Tanesei trading) S\$13.40/50g Fair Price	일본산 (Yu Pin King) S\$9.05/100g 중국산 (Yu Pin King) S\$2.55/50g Cold Storage/Giant
		
중국,한국,일본산 S\$3.50~12/100g Albert Centre	선물용 포장 (중국산) S\$19.50/100g HockHua Tonic	중국산 S\$10.50/250g HockHua Tonic

-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건표고버섯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크기, 품질별로 S\$2.7~5.1/100g에 판매되며 일본산 직수입 제품은 S\$13.4/50g에, 일본에서 수입 후 싱가포르에서 재포장한 제품은 S\$4.75/50g에 판매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전역에 50개 이상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HockHua Tonic 건강약재 전문점에서는 중국산과 일본균주를 가지고 중국에서 배양시킨 제품을 취급하며 가격은 중국산은 크기나 품질별로 S\$9.5~12/250g, 일본균주 중국산은 이보다 고가인 S\$14.5~16.8/250g로 판매됨
-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건어물 취급점 중의 하나인 Albert Centre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산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S\$3.5~6/100g에 한국산은 S\$7/100g, 일본산은 S\$12/100g에 판매되고 있음

나. 생표고버섯

- 대형마켓에서 판매되는 생표고버섯은 중국산이며 가장 많으며 단가를 비교해 보면 FairPrice S\$1.15~1.25/100g, ColdStorage S\$1.29/100g, Giant S\$0.88/100g에 판매됨

		
중국산 S\$2.30/200g Fair Price	중국산 (BanChoon Marketing) S\$1.25/100g Fair Price	일본산 (BanChoon marketing) S\$6.30/100g Fair Price
		
중국산 S\$1.29/100g Cold Storage	대만산 (Cold 자체브랜드) S\$4.40/150g Cold Storage, Market Place	중국산 (Giant 자체브랜드) S\$1.75/200g Giant
		
태국산 유기농 (Zenxin Agri) S\$4.50/100g Giant, Market Place	말레이시아산 S\$12/Kg 재래시장	말레이시아산 (champ fungi) S\$2.2/150g Fair Price

- 중국산 이외의 제품으로는 판매되는 나라의 제품이 유통업체별로 달랐으며 FairPrice에서는 말레이시아산 (슬라이스된 것)을 S\$2.2/150g에 일본산은 S\$6.3/100g (중국산의 약 5배)에 판매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겨냥한 마켓인 Market Place나 ColdStorage에서는 대만산이 S\$4.4/150g (중국산의 약 2배), 저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Giant에서는 태국산 유기농 제품이 S\$4.5/100g (중국산의 약 5배)에 판매됨
- 재래시장에서는 주로 말레이시아산이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은 S\$1.2/100g에 판매되어 중국산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 싱가포르에서 표고버섯은 연중 버섯코너에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꾸준한 수요층이 있는 버섯 종류로 다른 버섯류에 비해 세일이 많지 않고 가격대의 변동도 크게 없음

다. 기타 표고버섯제품

		
굴소스 (표고버섯 향) 싱가포르산 (Woh hup) S\$3.25/500g	버섯 스탁 싱가포르산 (Woh hup) S\$3.95/265g	모듬 버섯 통조림 대만산 (Mili) S\$1.75/280g

□ 유통 / 소비 동향

- 싱가포르는 비농업국가로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상이 직접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 직접 판매 또는 소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대형마켓이나 재래시장 등에 납품/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됨
- 건표고버섯은 싱가포르 대형 슈퍼마켓 건조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며 중국산과 일본산 두 가지 종류가 판매되나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백화고, 향고, 동고 등의 표고버섯 종류가 판매되며 중량은 50g/100g/150g/200g/350g 등 수입업체별로 다양하였고 일본산은 주로 소량포장 50g/100g으로 판매됨

- 그 밖에 건표고버섯은 차이나타운과 건어물 전문마켓, 건강약재 전문점인 HockHua Tonic 등에서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짐
- 중국산 중에서도 일본 균주를 가지고 중국에서 재배한 제품이 일본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음. 한국산은 대형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어물 전문점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되는 종류도 다양하지 못함
- 모든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중국산 생표고버섯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나라 제품은 유통매장별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 고급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Cold Storage의 경우 대만산 제품을, 가장 큰 유통업체인 Fair Price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슬라이스된 것)과 일본산을, 서민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Giant에서는 태국산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재래시장에는 대형유통업체와는 달리 주로 갓이 크고 신선도가 뛰어난 말레이시아산이 판매되고 있으며, 6월 현재는 싱가포르산 표고버섯은 판매되고 있지 않음
- 싱가포르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생버섯은 양송이, Swiss Brown, Portobello의 버섯 종류가 비중이 크며, 그 외에는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이 있음

시장 경쟁 상황

- 생표고버섯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품질의 차이에 따라 식당, 호텔,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며 싱가포르산 제품은 로컬푸드 개념으로 선호도는 높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항상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님. 말레이시아산은 주로 말레이시아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신선도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음.
- 일본, 대만산은 일부 대형마켓에서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는 높으나 가격 경쟁력이 낮으며, 다양한 고객층이 없다보니 신선도 면에서 중국산이나 말레이시아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임
- 건표고버섯 시장은 백화고, 향고, 동고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중국산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균주 중국배양 제품이 반응이 좋음. 또한 30분만 물에 불리면 바로 조리가 가능하다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함. 일본산은 상대적으로 아주 고가이나 원전사고 이후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한국산은 일반 마켓에서는 판매되지 않으며, 건어물 전문 마켓에서나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의 제약이 있고 가격경쟁력 및 제품 다양성 면에서도 중국산과의 경쟁

이 어려운 상황임

□ 향후 시장 전망

1. 이슈현안

- 싱가포르의 유일한 버섯 전문농장인 Mycofarm은 약 30년간 Emperor Shiitake, Willow, White Oyster 등 5가지가 넘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이었으나 2015년 말로 농장부지 리스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농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싱가포르 내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버섯농장 경영이 여의치 않아 그 생산도 점점 감소되는 추세임

2. 수입 전망

가. 표고버섯(생표고)

- 전 세계 버섯 소비의 약 24%를 차지하는 표고버섯은 아시아 특히 중화권에서는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싱가포르 시장도 표고버섯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함. 싱가포르에서는 단연 중국산이 물량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나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제품이 들어온다면 기존의 한국산 제품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이후 말레이시아 신선버섯 최대 수출국은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산은 지리적으로 싱가포르와 가까워 운송이 빨라 신선도가 좋고 중국산 대체 품목으로 가격도 적정하여 선호도가 높음. 싱가포르 자체 생산품도 인기가 있으나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음

나. 표고버섯(건조표고)

- 중화권인 싱가포르에서 건조표고버섯은 꾸준한 수요층이 있는 제품으로, 채식주의자나 종교상의 이유로 육식 대용으로 버섯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저가의 중국산 상품은 주로 현지 식당으로 유통되며 고급식당이나 호텔 등에 납품되는 제품들과 고급 품질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일본균주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은 가격이나 물량 면에서 경쟁이 다소 어려운 상황임

다. 시사점

- 이미 한국산 팽이버섯이 현지에 들어와 대만산과 일본산과의 경쟁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의사는 높음
- 표고버섯의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과 생표고버섯의 경우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형마켓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여겨짐
- 최근 한국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잡채나 비빔밥 등의 재료로 표고버섯이 사용되는 것을 아는 현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용지에 요리 레시피를 인쇄하여 홍보하는 등 한국산만의 특화 작업도 필요하며 이러 한 요리의 시식행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한국산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필요함